안녕하세요 위클리에요

[Weekly: 2025/09/22~2025/09/28]

2025.09.29

[로봇] 로봇 분야에서도 시작되는 미국의 견제

- 이번 주, 한국에서 CoRL 2025와 IEEE-RAS Humanoid 컨퍼런스 개최
- 미국이 로봇과 공작기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관세 부과 가능성
- 구글의 제미나이 1.5 공개.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연구 강화 추진

[방산] 수출에 더해지는 내수

- K-방산의 중동 순방 종료. 연내 이라크 방한 등 후속 협의에 관심
- KAI의 연전 연패. 전자전기도 패배, 무인표적기 사업도 대한항공에 敗
- 유럽의 드론 영토 침범 확대. 높아지는 긴장감

[항공] 돌아오는 중국 관광객

- LCC들 4분기 신규 취항 확대. 진에어 구이린, 이스타 마나도, 에어로K 이바라키/오비히로
-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개시. 중국 노선 수요 확대 기대
- LCC 좌석 폭도 지적하는 정부. 국토부 행정 지도 필요성 제기

[조선] 믿을 구석은 미국발 LNGC 밖에 없다

- 미국發 LNGC 발주 기대감 확대. 포트아서 LNG도 FID. 우드사이드도 20척 발주 추진
- 중형 조선소 미국 함정 MRO 위한 MSRA 체결 임박. 현장 실사 수행
- 미국 노조가 Ships Act 통과 촉구. 한편, 대미투자 현금 투자 요청에 흔들리는 한미협력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로봇 분야에서도 시작되는 미국의 견제

미국이 이번에는 로봇 분야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 중. Section 232에 근거하여 미국 안보 영향성 조사 착수. 미국 내 로봇 공급망 및 생산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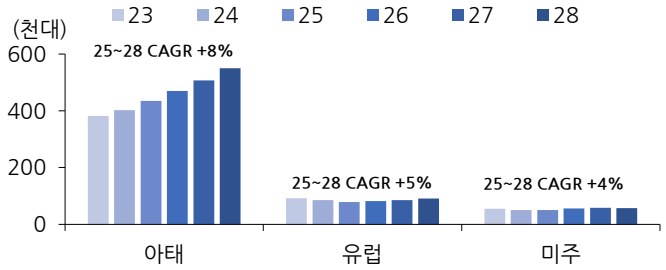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98)

[로봇 분야에서도 시작되는 미국의 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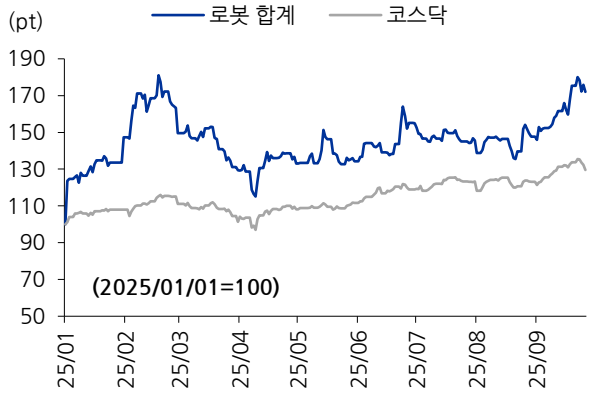
- 미국 상무부가 Section 232에 근거하여 로봇, 산업 기계, 의료기기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착수. 미국 로봇 수요 및 미국 생산 능력, 해외 공급망 역할, 수입 집중도 및 위험,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 리스크, 외국 제품의 수출 제한 가능성, 미국 생산 능력 확대 등을 조사할 예정.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세 부과 조치 가능.
- 산업용 로봇의 경우, 미국 자체 로봇이 없어 일본 등 해외 제품을 중용중. 관세 부과시, 일본과 중국, 유럽 로봇 기업의 타격 가능성.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있는 화낙과 ABB(미시간주)의 경쟁 우위.한국은 미국향 수출 미미해 영향은 제한적. 일부 수술 로봇 등 타격 가능성.
- 미국은 제조업 리쇼어링 추진 확대 속 및 자동화 수요가 증가 중. 해외 로봇 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 내 자동화 확대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미국 내 로봇 생산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초석. 향후 로봇 분야에서도 각종 견제 정책 나올 가능성.

Key Chart: 지역별 산업용 로봇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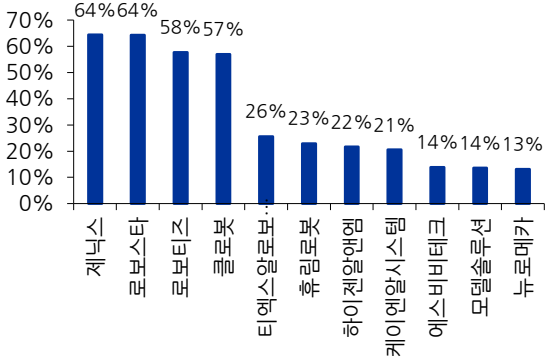


자료: IFR,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09/22~09/29)

[서비스 로봇]

- 무역위, 日·中 산업용로봇 최대 43.6% 잠정반덤핑관세 의견
- 레인보우로보틱스, AI 기반 양팔로봇 솔루션 공개

[서비스 로봇]

- 쿠팡 "AI·로봇 자동화 인력 750여명. 1년 새 50% 증가"
- CJ대통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투입. 로보티즈와 MOU
- 배민 로봇, 비로보틱스가 출범 2년 만에 구조조정

[기타(정책/부품/SW)]

- ETRI, 친구처럼 교감하는 '로봇 브레인' 개발 착수
- 국내 첫 휴머노이드 실증 착수. 조선·의료·물류 투입
- 에이딘로보틱스, 휴머노이드용 센서 신제품 3종 공개
-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 국내외 기업 총출동
- 뉴로메카, 휴머노이드 플랫폼 4종 순차 공개

[Global]

- 미, 로봇·산업기계 안보영향 조사. 관세 확대 주목
- 테슬라 공장서 로봇이 직원 공격. 대규모 소송 제기
- 오픈AI, AGI 경쟁 속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강화
- 구글 딥마인드, 고차원 사고 제미나이 로보틱스 1.5 공개
- 오픈마인드, LG전자와 차세대 로봇 안전기술 공동 연구
- 中 유비테크 "내년 휴머노이드 수천대 판매 예상"
- 유니트리, 하반기에 180cm 휴머노이드로봇 발표 예정
- 中 물류로봇 리비아오, 美 심장부 뉴저지에 '출사표'
- 중국, 24년 공장 로봇 29.8만대 신규 설치로 200만대 돌파
- 中 하이얼 냉장고 공장에 '스텝'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 日정부, 범용 휴머노이드 연구 지원. 30년 시제품 개발

Weekly Keyword

수출에 더해지는 내수

10월에 미국의 NDS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이 한층 강화되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는 지속될 전망. 한국도 국방비 지출 증가 가능성. 국방비 확대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 주목.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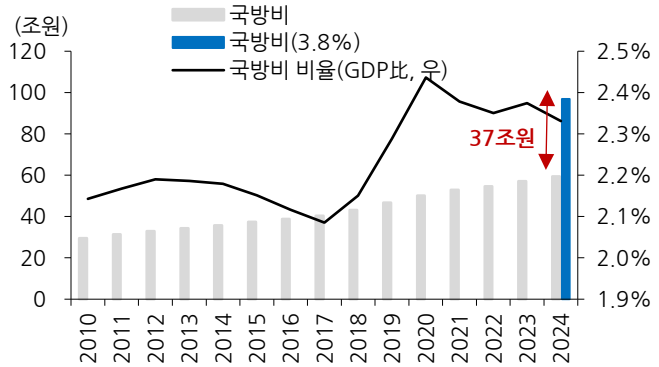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46)

[수출에 더해지는 내수]

- 10월에 미국의 NDS(국가방위전략서)가 공개될 예정. 미국 본토 방어, 중국 견제, 동맹국 분담 확대, 방산 기반 활성화 강조 예상.
-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 지속되면서, 유럽과 아태 등 미국 동맹국의 방위 분담에 대한 부담 확대 전망. 유럽 내 NATO 가입 국가들은 국방비 지출 목표 GDP 대비 5% 제시.
-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동일 수준 국방비 지출 요구 중. 한국도 최근 관세 협상간 3.5% 이상의 국방비 지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의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 초반. 목표 상향시 30~40조원의 증액 필요성. 향후 한국 방산은 수출 확대 외 국내 방산 수요 증가 가능성에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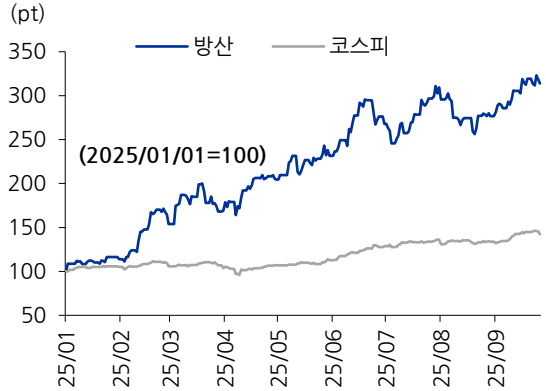
Key Chart: 한국 국방비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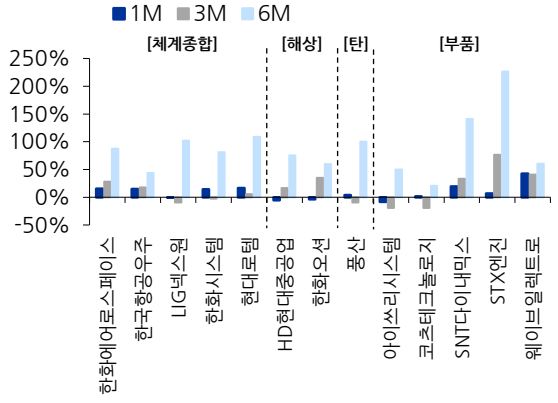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GDP 比 3.8% 인상시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9/22~09/29)

[수주/계약]

- LIG넥스원, 851억 규모 천궁-II 유도탄 공급 계약 체결
- K2 관심 이라크, 10월 현대로템 방문. '9조 수출' 촉각
- 전자전기, LIG/대한항공 유력. KAI 이의신청 '무용지물'
- 퍼스텍, 한화에어로에 566억 규모 로봇 구성품 계약
- 대한항공 MTB용 무인 표적기 사업 수주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II 개발 완료
- 한화에어로, 임단협 잠정합의. 성과급 최대 1,250만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우디 방산 '전방위 세일즈'
- LIG넥스원, 에어버스 DS와 통합방공분야 협력 체결
- 삼양컴텍, 구미에 첨단 방탄 세라믹 생산시설 구축

[기타]

- 안규백 국방장관, 이라크 총리·국방장관 만나 방산 논의
- 국방장관,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 협력 확대 제안
- 폴란드 정상 만난 李대통령 "잠수함 등 방산협력 확대 기대"

[글로벌]

- 프랑스·독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 주도권 놓고 '삐걱'
- 덴마크·노르웨이 "군사기지 인근에 드론 출몰"
- EU, 러 드론 탐지·추적·요격할 방어망 구축 추진
- 독일, 26년말까지 830억유로 방위 조달 계약 체결 예정
- 안두릴, 바라쿠다 미사일의 지상발사 시험에 성공
- 미국 보잉 F-47 1호기 28년 첫 비행 예정
- 록히드마틴, 생존성을 키운 독자 CCA Vectis를 발표
- 태국 공군, 차세대 A330 MRTT+ 공중급유기 주문

Weekly Keyword

돌아오는 중국 관광객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 정부는 해당 기간 낸 100만명의 중국인 추가 방한을 전망. 국내 항공사에도 일부 낙수 효과 기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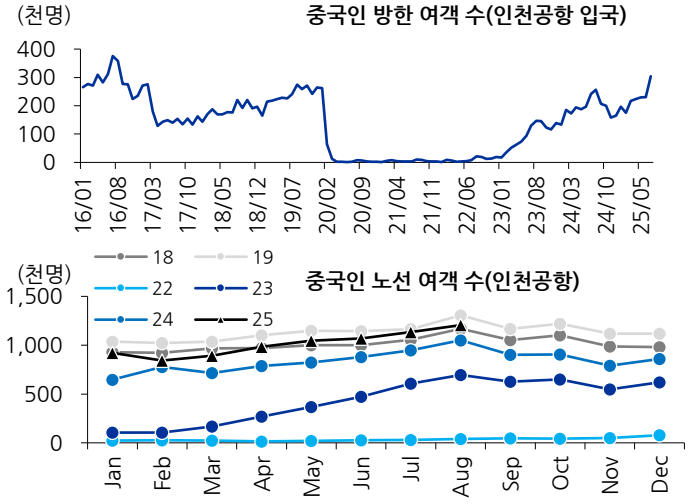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6)

[돌아오는 중국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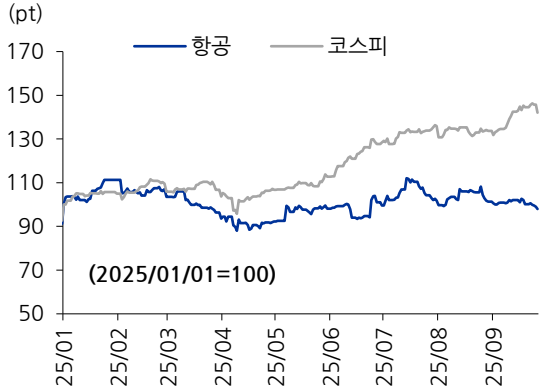
- 9월 29일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대상. **정부는 약 100만명의 추가 방한을 예상한 바 있음.** 일차적으로 중국 국적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한국 LCC, FSC로의 낙수 효과도 기대됨.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전에도 내국인의 중국 여행 수요가 호조를 기록하며 중국 노선 여객 수는 전년비 두자릿수 성장세를 지속 중. 통상적으로 단거리 노선의 수익성이 좋은 만큼, 중국 노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사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

Key Chart: 인천공항 중국 노선 수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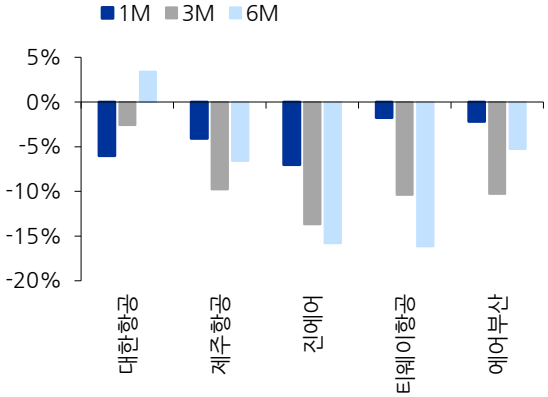


자료: 관광데이터랩, 인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항공 주요 뉴스(09/22~09/29)

[여객/화물]

- 진에어, 10월 22일부터 인천~구이린 신규 취항
- 이스타항공, 인천-인니 마나도 10월 26일 단독 취항
- 에어로케이, 인천-이바라키·오비히로 신규 취항
- 중국 국경절 앞두고 단체입국 무비자 돌입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2026년 공개 채용. "글로벌 항공사 도약"
- 대한항공, SAF 혼입 日 고베·오사카 노선 적용
- 이스타, 국내 첫 "10월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 금지"
- 에어프레미아 "추석연휴 다낭·홍콩·뉴욕 노선에 자리 여유"
- 에어로케이 A320 8호기 도입, 연내 1대 추가 도입

[기타]

- 정준호 "LCC 이코노미 너무 좁아, 국토부 행정지도 필요"
- 보잉 "올해 한국산 부품 50% 더 살 것"
- KAC, 김해공항 신규 노선 유치 외항사 '설명회 개최'
-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수도권 외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등

[글로벌]

- 미 항공사, 승객 보호 축소 및 추가 요금 강화 추진
- 에어아스타나, 에어인디아와 공동운항 체결
- EU, 10월 새 출입국시스템 시행. "입국시 혼잡 예상"
- 미 소비 63%, 상위 20% 주도 "K자형 양극화↑"
- 일본 스폰지 티타늄 수출 사상 최고치 갱신 기대

Weekly Keyword

믿을 구석은 미국발 LNGC 밖에 없다

포트 아서 LNG Ph2의 FID 발표. 이 외 우드사이드의 루이지애나 LNG향 LNGC 발주 움직임 등 미국발 LNGC 발주 기대감이 지속 확대되는 중. 중국 조선소 배제되며, 높은 선가에 수주를 기대.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6)

[믿을 구석은 미국발 LNGC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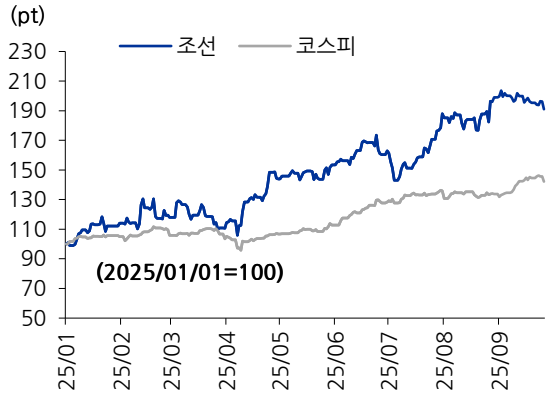
- 미국발 LNGC 발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지난 주 미국 Sembra의 텍사스 포트 아서 LNG Phase 2의 FID가 발표되었음. 13MTPA 규모로 20척 내외 LNGC 발주가 기대됨. 호주 우드사이드는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를 위한 LNGC 20여척 발주를 국내 조선소들과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 이 외 미국 벤처글로벌의 LNGC 12척 등 다수 파이프라인 존재. 미국발 LNGC 발주 프로젝트에서는 중국 조선소가 배제되면서 한국 조선소들의 선가 협상 관점 우위 전망. 28년 이후 한국 조선소들의 조선 부문 수익성을 지켜줄 것.

Key Chart: 미국 LNG FID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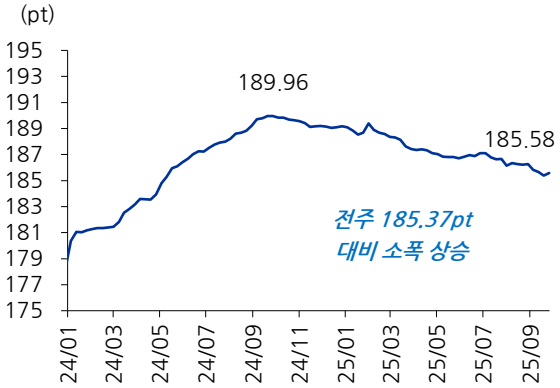
구분	프로젝트명	오퍼레이터	규모(Mtpa)
2025년 FID	Woodside Louisiana Ph 1	Woodside	16.50
	Corpus Christi Midscale Trains 8&9	Cheniere	5.00
	CP2 Ph1	Venture Global	14.40
2025년 ~2026년 FID 전망	Rio Grande 4&5	Next Decade	11.80
	Delfin FLNG 1	Delfin	3.30
기타 가능성 파이프라인	Lake Charles	Energey Transfer	16.40
	Sabine Pass Stage 5	Cheniere	14.00
	Commonwealth LNG	Commonwealth LNG	9.50
	CP 2 Phase 2	Venture Global	5.50

자료: GTT,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9/22~09/29)

[상선/해양]

- 가스로그, 한화오션서 5억 달러 LNG선 2척 추가 발주
- 어드밴티지탱커, 한화오션 VLCC 옵션 1척 행사
- 미국 노조, 'SHIPS for America Act' 통과 촉구
-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14척 삼성重과 중국에 발주
- 우드사이드, 韓 조선업체와 '7조원' LNGC 20척 협상
- 대한조선 7,100억원 원유운반선 6척 수주
- HD현대 정기선, 사우디 투자부장관 회담. 조선 협력 논의
- HD한국조선해양 인도 조선소에 2조 9,300억원 투자

[특수선]

-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6개국 입찰 연내 결과 발표 예정
-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10월 경주 APEC이 분수령
- 加 해군사령관 "잠수함 도입 한화·TKMS 복수 선정 유리"
- 한화오션·밥콕,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동맹'
- 미 해상체계사령부 HJ중공업 현장실사. MSRA 체결 임박
- 트럼프 내달 방한. HD현대·한화오션 조선소 방문 '관심'

[기타]

- 美, 대미투자 3,500억불 중 최대 30% 현금투자 요구
- 미국 마스가 관련 조선 인력 양성 아카데미 신설
- HD현대, 싱가포르 중간지주 'HD현대아시아홀딩스' 설립
- HD현대삼호 노사, 2025년 임금교섭 타결
- 삼성중공업 10년만에 공모채 시장 최대 3,000억원 발행

[글로벌]

- 셈프라, 포트아서 LNG 프로젝트 확장 FID 결정
- 전 세계 LNG선, 2030년까지 150~250척 더 필요